

■ 지평 소식 ■

지평 미얀마팀, 일본 동경에서 '미얀마 투자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지평 미얀마팀은 지난 1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10대 로펌 등 우수 로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투자 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철, 유정훈 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미얀마 현지법인장이 강사로 참여하고,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일본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러쉬에 따른 법률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이미 30여 건의 일본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며, 본사 미얀마팀과 협력하여 미얀마 관련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